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서울수 사무관 유용신	042-481-5923
	2015년 6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23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중국에서 가장 많아

- 미국에서는 특허피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 ~ '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① 수출 기업이 겪은 해외 지재권 분쟁의 36%가 중국에서 발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¹⁾ 131건, 침해 분쟁²⁾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하였다.

* 국가별 지재권 분쟁 건수(비율) : 중국 86건(36.6%), 미국 59건(25.1%), 유럽 31건(13.2%), 일본 21건(8.9%), 기타 38건(16.2%)

- 1)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 2)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권리 유형별 분쟁 건수 : 특허 10건, 실용신안 1건, 상표 65건, 디자인 10건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② 미국에서는 특허 피물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 30%를 상회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은 51.9%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 많았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미국 54건, 유럽 23건, 일본 16건, 중국 7건, 기타 4건

* 지재권 유형별 침해 분쟁 건수 : 특허 71건, 실용신안 1건, 상표 28건, 디자인 4건

* 기업 유형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대 5건, 중견 28건, 중소 60건, 벤처기업 11건

* 업종별 지재권 침해 분쟁 건수 : 전기전자 35건, 기계 24건, 화학 20건, 기타 25건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피물³⁾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비용 평균액이 11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⁴⁾ 등을 통한 사전 대응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아니하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

4) 지재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허청에서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 지원

- * 미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 기업의 유형은 해외 경쟁사인 경우가 63.2%, NPEs인 경우가 31.6%를 차지
- *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소송비용 평균 : 미국 116백만원, 중국 10백만원, 유럽 32백만원, 일본 79.8백만원

③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은 여전히 취약

한편,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비중이 81.3%로 높아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중소·벤처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파악된다.

- * 중소기업 56.4%, 벤처기업 14.9%, 중견기업 21.8%, 대기업 6.9%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고, 지재권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대기업 57.1%,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6.3%, 벤처기업 20.0%

- ** 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 중소기업 1.8명, 벤처기업 1.5명

④ 해외 전시회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

수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시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분쟁은 유럽에서 57.1%, 중국에서 42.9%가 발생하여 유럽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지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 대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 101개 조사 대상 기업 중 해외 전시회 관련 질문에 응답한 기업 수

기업들은 해외 수출 협상 과정에서 특허 보증⁵⁾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 중 15.8%가 특허 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14.9%는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 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의 특허와 관련된 손해를 납품 기업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특히 보증 계약의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56.3%로 제품 판매 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3.8%)보다 높았다. 특히, 벤처 기업의 경우는 특히 보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66.7%로 협상을 통해 조정했다는 경우(33.3%)보다 많았다.

⑤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IP-DESK⁶⁾를 통한 해외 현장 지원,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pr.re.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재권 분쟁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지식 재산보호협회 지재권 분쟁 대응 센터(02-2183-5800)로 연락

6)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지원센터로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동경, 6월말 개설 예정)에 설치

1 조사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지속되는 실정

* 우리 기업-외국 기업간 특허분쟁 건수 : '10년 186건 → '11년 280건 → '12년 224건 → '13년 342건 → '14년 300건

-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실태 조사 추진

□ 조사 대상

- (1차 전화조사) 코참비즈 수출 기업 12,560개* 중 166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

* 코참비즈⁷⁾(korchambiz) 수출기업 중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유한 국내기업

- (2차 설문조사) 분쟁경험이 있는 166개 기업 중 101개 기업* 응답

* 기업 구성 : 대기업 7개, 중견기업 22개, 중소기업 57개, 벤처기업 15개

□ 조사 내용

-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피침해 및 침해(전시회 분쟁, 경고장 수령 등) 현황, 소송 및 특허 보증 현황 등을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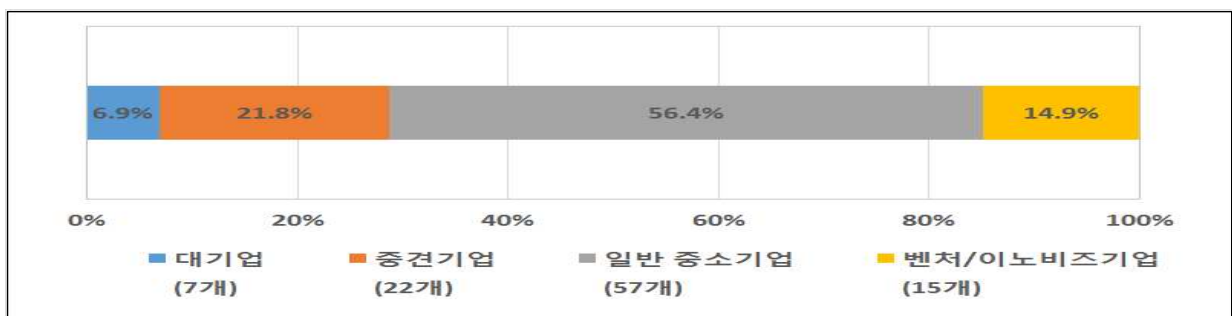
7) 대한상공회의소(KORCHAM)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로, 업종별·지역별·분야별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2 조사 결과[요약]

1. 전체 지재권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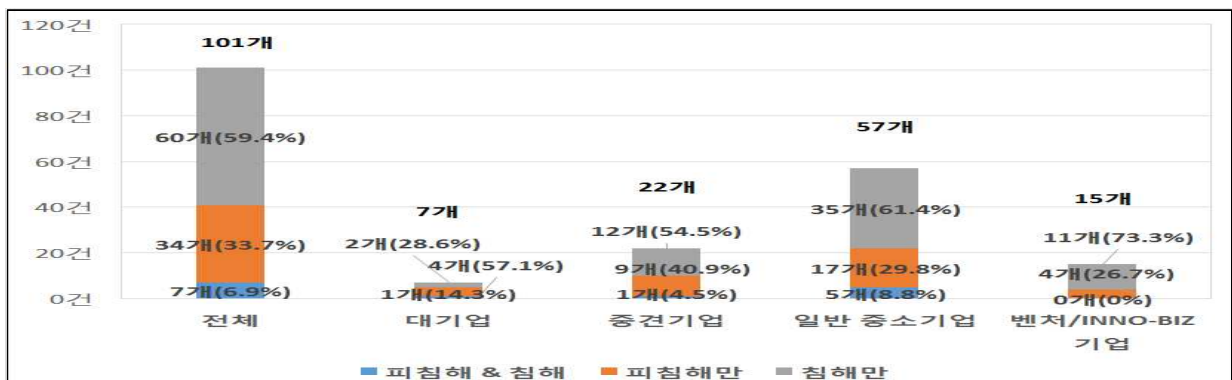
□ 분쟁 경험 기업 현황

- 설문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



□ 기업 유형별 분쟁 유형

- 조사 대상 기업(설문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의 66.3%가 지재권 침해⁸⁾ 분쟁을 겪었으며, 피침해⁹⁾를 경험한 비중은 40.6%
- 대기업은 피침해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중소 및 벤처기업은 침해 비중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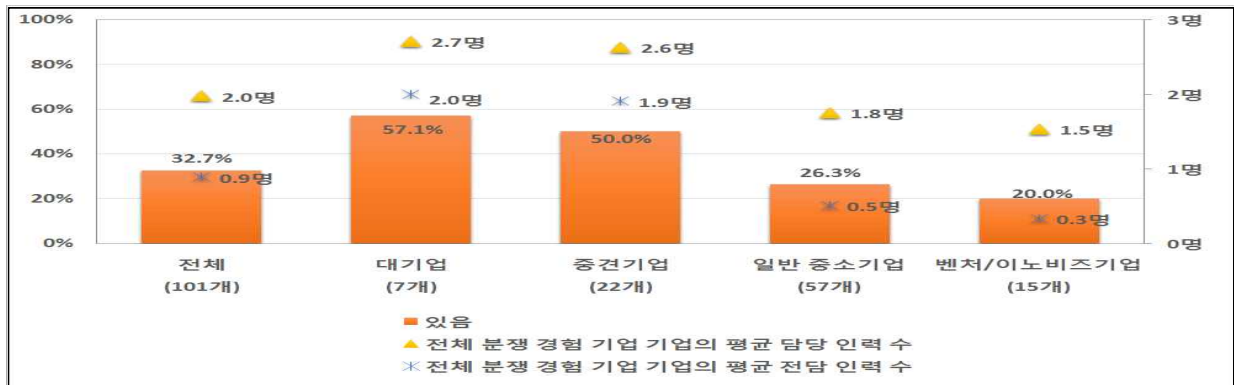
8) 우리 기업이 해외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9)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해외기업이 침해한 경우

□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

- 전체 101개 기업 중 지재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32.7%, 평균 담당인력¹⁰⁾(겸임인력 포함)은 2.0명, 이 중 전담인력¹¹⁾은 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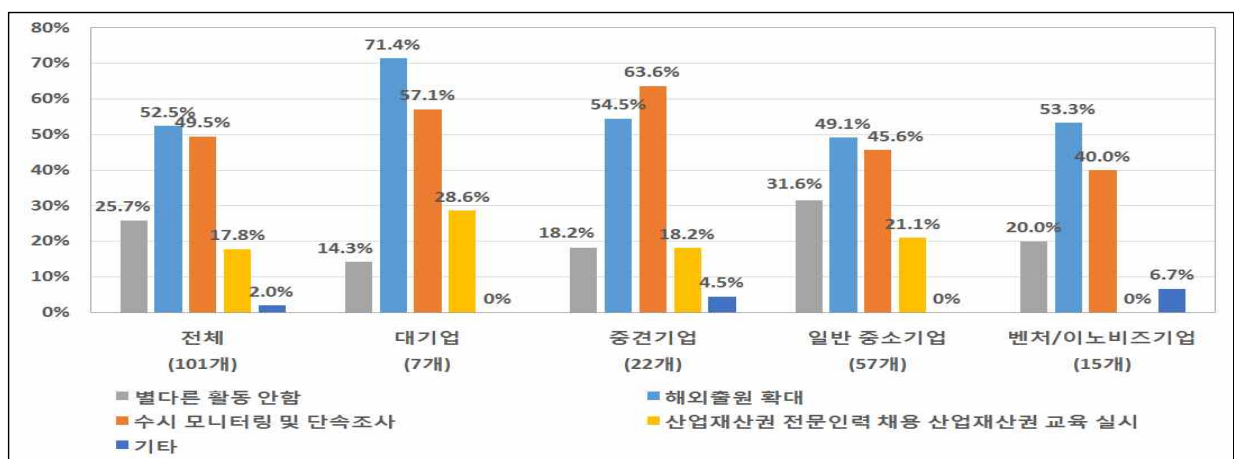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과 담당 인력이 감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

- 조사 대상 기업들은 해외 출원 확대(52.5%), 수시 모니터링 및 단속 조사(49.5%) 등의 사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중견 기업의 사전 예방 활동이 활발하고, 중소·벤처 기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



10)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 지식재산권 전략 기획,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유지 관리, 지식재산권 동향 조사, 특허침해 관련 대응 및 소송업무, 지식재산권 판매 또는 라이선스 협상 및 기술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함

11)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

□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해외 국가에서의 지재권을 등록한 비율은 중국이 60.4%로 가장 높고, 일본과 미국이 각각 54.5%와 53.54%의 비율을 보임
- (지재권 유형별) 대체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의 비율이 다른 지재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기업 유형별) 중소·중견·벤처 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지재권 보유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

(단위: %)

		전체 (101개)	대기업 (7개)	중견기업 (22개)	중소기업 (57개)	벤처기업 (15개)
미국	지재권 보유비율	53.5	100.0	54.5	43.9	66.7
	특허 보유비율	35.7	42.9	40.9	26.3	60.0
	상표 보유비율	33.7	71.4	40.9	28.1	26.7
	디자인 보유비율	15.8	14.3	18.2	15.8	13.3
중국	지재권 보유비율	60.4	100.0	68.2	56.1	46.7
	특허 보유비율	33.6	42.9	45.5	28.1	33.3
	실용신안 보유비율	4.0	0.0	9.1	3.5	0.0
	상표 보유비율	41.6	71.4	54.5	36.8	26.6
	디자인 보유비율	18.8	14.3	27.3	17.6	13.3
유럽	지재권 보유비율	42.6	85.7	50.0	35.1	40.0
	특허 보유비율	22.8	28.5	22.8	21.1	26.7
	상표 보유비율	28.7	57.2	40.9	22.8	20.0
	디자인 보유비율	10.9	0.0	18.2	12.3	0.0
일본	지재권 보유비율	54.5	85.7	59.1	47.4	60.0
	특허 보유비율	34.6	28.5	45.4	26.3	53.3
	실용신안 보유비율	4.0	0.0	4.6	5.3	0.0
	상표 보유비율	29.7	57.2	36.3	26.3	20.0
	디자인 보유비율	13.9	0.0	22.8	15.8	0.0
기타 국가	지재권 보유비율	42.6	57.1	45.5	36.8	53.3
	특허 보유비율	18.8	14.3	22.7	14.0	33.3
	실용신안 보유비율	2.0	0.0	0.0	3.5	0.0
	상표 보유비율	26.7	42.9	36.4	22.8	20.0
	디자인 보유비율	6.0	0.0	18.2	3.5	0.0

□ 분쟁 발생 지역별 전체 분쟁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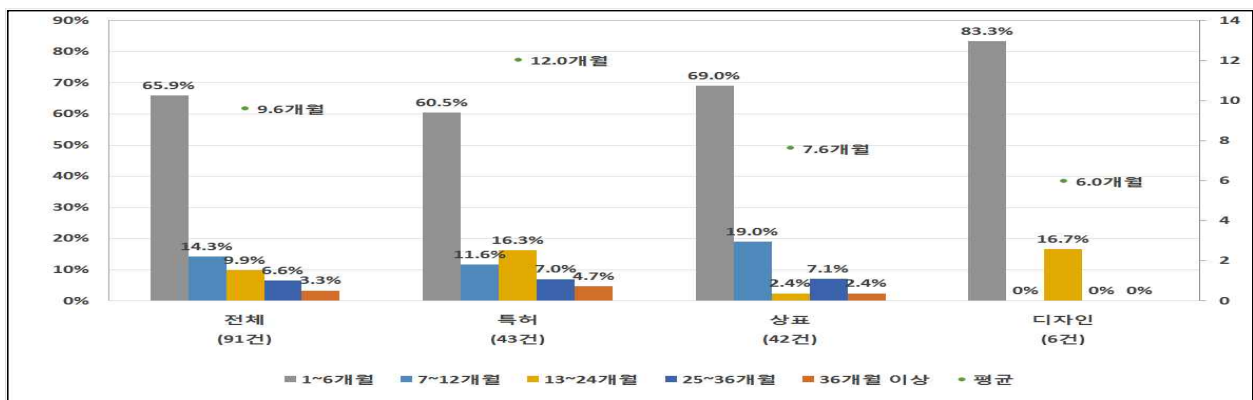
-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지재권 분쟁은 총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으로 36.3%가 중국에서 발생
- 지재권 유형별로는 상표권 분쟁이 53.2%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약 52%가 중국에서 발생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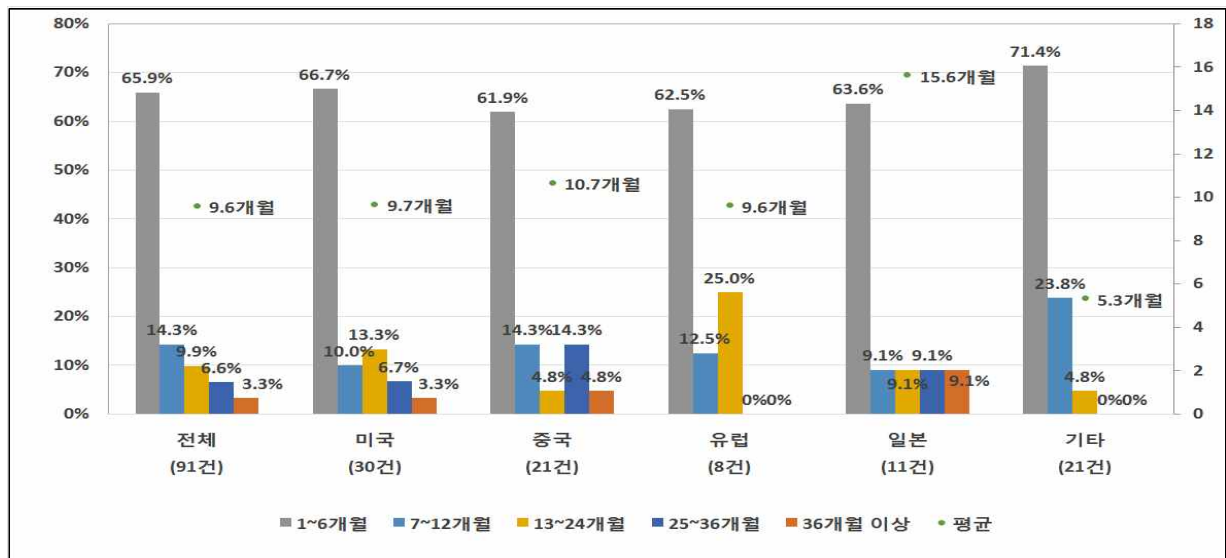
구 분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235 (100)	59 (25.1)	86 (36.6)	31 (13.2)	21 (8.9)	38 (16.2)
기업 유형	대기업	21	1	13	3	2	2
	중견기업	83	17	43	8	5	10
	일반 중소기업	116	34	27	20	9	26
	벤처/INNO-BIZ 기업	15	7	3	0	5	0
지재권 유형	특허	93	48	10	17	16	2
	실용신안	1	-	1	-	0	0
	상표	125	10	65	10	4	35
	디자인	16	1	10	4	1	1

□ 종결된 지재권 분쟁 사건의 기간

- 235건의 분쟁 사건 중 종결된 91건의 분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9.6개월이 걸렸으며, 절반 이상의 사건이 6개월 이내에 종결
- 지재권 유형별로는 특허 분쟁 기간이 12개월로 가장 길었고, 디자인권의 분쟁 기간이 6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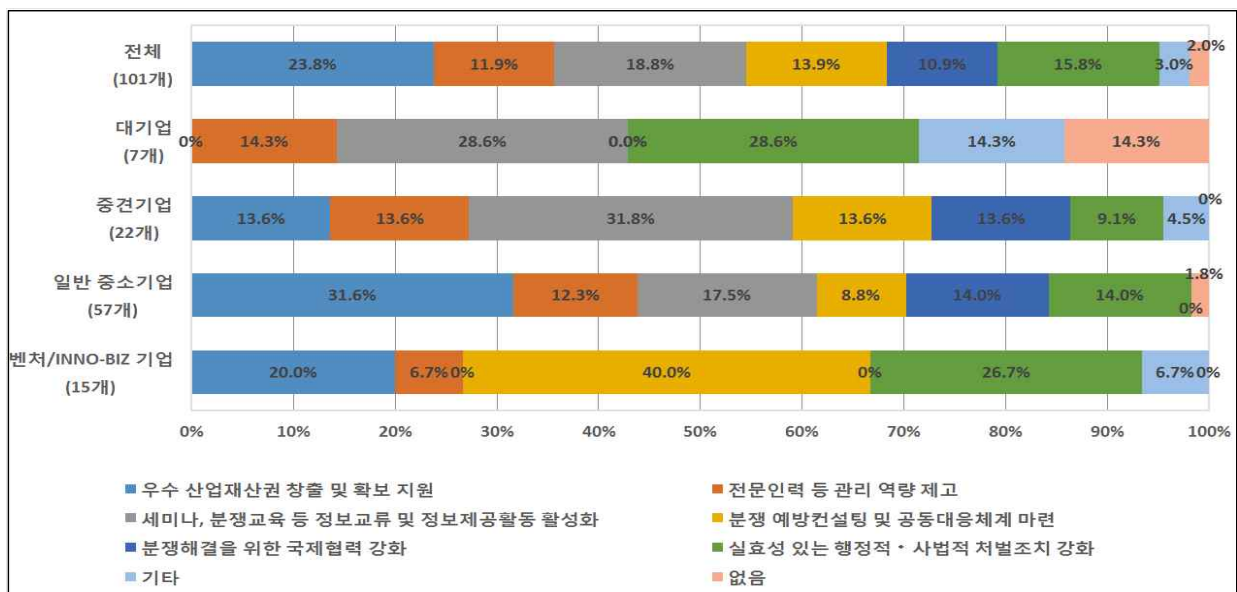
- 분쟁발생 지역별 분쟁 기간을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에서의 평균 분쟁기간이 각각 15.6개월, 10.7개월로 길게 나타남



□ 지재권 정책 요청 사항

- 정부 요청 사항은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확보 지원(23.8%)”, “세미나, 분쟁교육 등 정보교류 및 정보제공활동 활성화(18.8%)”, “실효성있는 행정적·사법적 조치 강화(15.8%)” 등

- 특히, 벤처 기업은 “분쟁 예방컨설팅 및 공동대응체계 마련(40%)”을 가장 많이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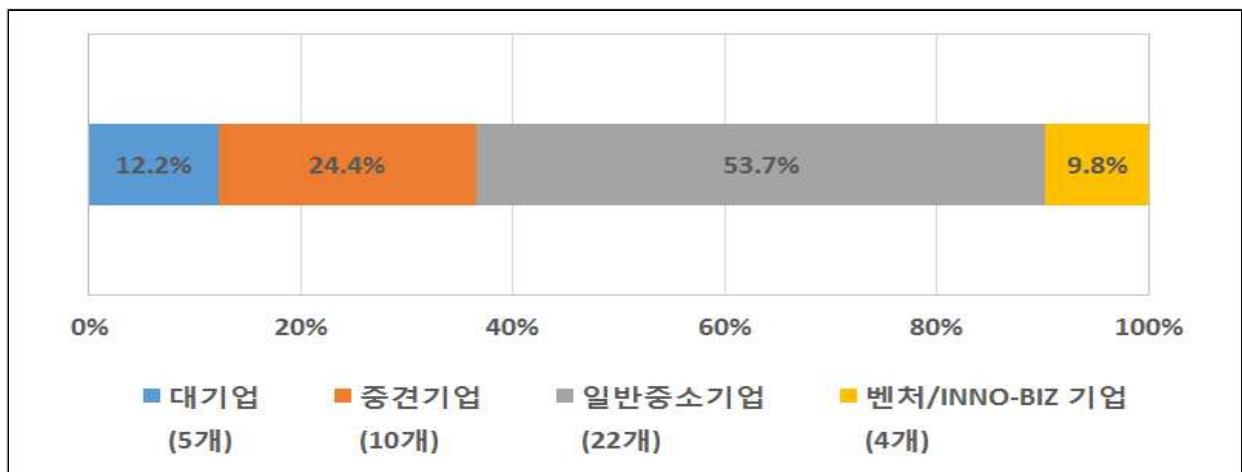


2.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

□ 기업 유형 및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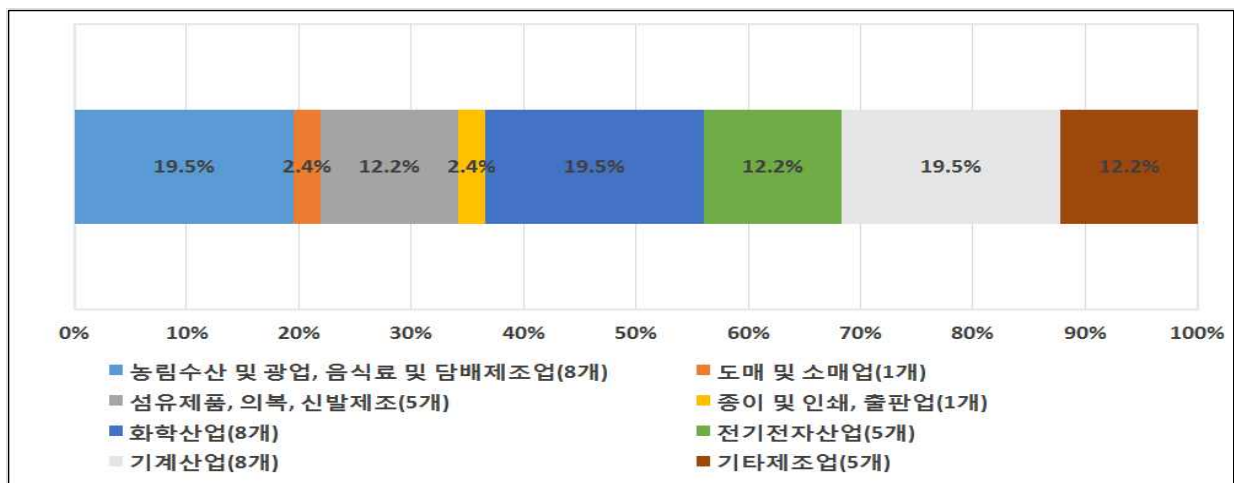
○ 조사 대상 기업의 40.6%(101개 기업중 41개 기업)가 지재권 피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중소기업이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견기업이 24.4%로 그 뒤를 이었음



○ 업종별로는 기계산업(19.5%), 화학산업(19.5%), 농림수산 및 광업·음식료 및 담배제조업(19.5%), 전기전자산업(12.2%) 순으로 피침해 경험이 많음

<피침해 경험 기업의 업종>



□ 분쟁 발생 지역별 지재권 피침해 분쟁 건수

- 피침해 경험 기업은 총 131건의 분쟁을 겪었으며, 60.3%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 중소·중견기업의 피침해 분쟁 건수가 84.7%(각각 56건, 55건)로, 중견기업의 경우 대다수 분쟁이 중국에서 발생(78.2%, 43건)
- (업종별) 기계·화학산업의 분쟁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52.7%, 각각 38건, 31건), 기계산업의 경우 대다수 분쟁이 중국에서 발생(78.9%, 30건)
- (지재권 유형별) 상표권 분쟁이 74.0%(97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약 61.9%(60건)는 중국에서 발생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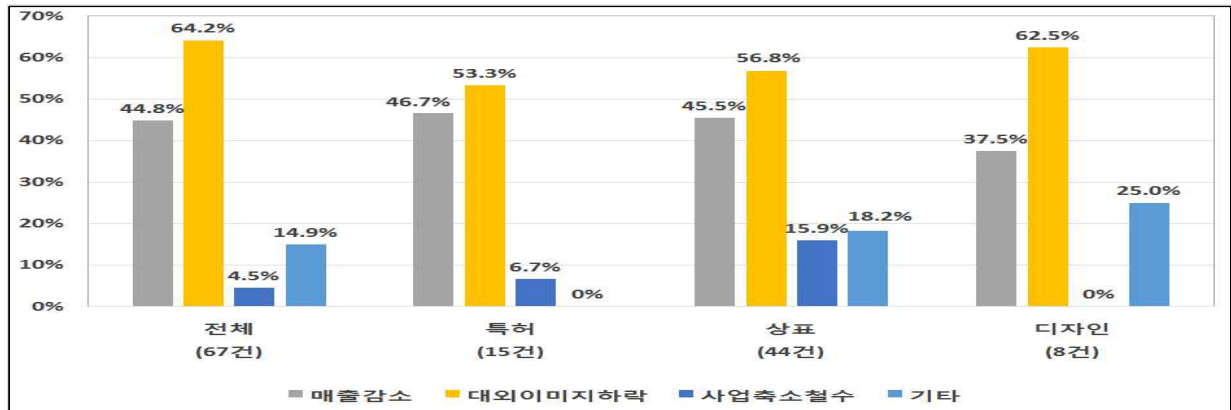
		전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31 (100)	5 (3.8)	79 (60.3)	8 (6.1)	5 (3.8)	34 (26.0)
기업유형	대기업	16(12.2)	0	13(9.9)	1(0.8)	1(0.8)	1(0.8)
	중견기업	55(42.0)	1(0.8)	43(32.8)	1(0.8)	0	10(7.6)
	일반 중소기업	56(42.7)	4(3.1)	20(15.3)	6(4.6)	3(2.3)	23(17.6)
	벤처/INNO-BIZ 기업	4(3.1)	0	3(2.3)	0	1(0.8)	0
업종	농림수산물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1(16.0)	0	16(12.2)	1(0.8)	1(0.8)	3(2.3)
	도매 및 소매업	2(1.5)	0	1(0.8)	1(0.8)	0	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15(11.5)	0	11(8.4)	0	0	4(3.1)
	종이 및 인쇄, 출판업	1(0.8)	0	1(0.8)	0	0	0
	화학산업	31(23.7)	3(2.3)	9(6.9)	2(1.5)	0	17(13.0)
	전기전자산업	9(6.9)	0	5(3.8)	0	0	4(3.1)
	기계산업	38(29.0)	2(1.5)	30(22.9)	4(3.1)	0	2(1.5)
	기타제조업	14(10.7)	0	6(4.6)	0	4(3.1)	4(3.1)
	지재권유형						
지재권유형	특허	22(16.8)	3(2.3)	10(7.6)	3(2.3)	4(3.1)	2(1.5)
	실용신안	0	-	0	-	0	0
	상표	97(74.0)	2(1.5)	60(45.8)	3(2.3)	0	31(23.7)
	디자인	12(9.2)	0	9(6.9)	2(1.5)	1(0.8)	1(0.8)

* 괄호 안은 피침해 분쟁 131건을 분모로 했을 때 각 분쟁 건수의 비율임

□ 지재권 피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 양상¹²⁾

○ (피침해로 인한 피해형태) 대외이미지 하락(64.2%)과 매출감소(44.8%)가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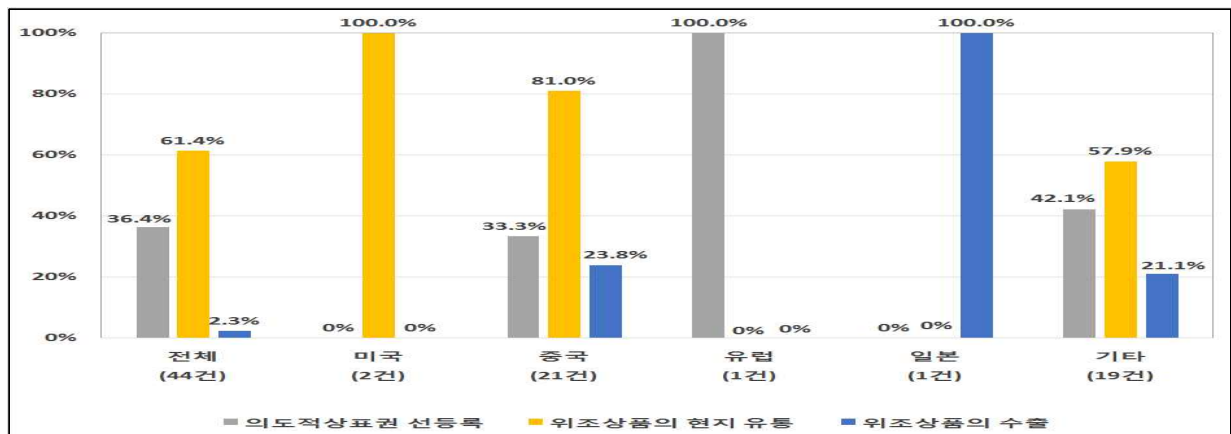
- 피침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철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특허(6.7%) 및 디자인(0%)에 비해 상표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15.9%)



<지재권 유형별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 (상표권 피침해 사건)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61.4%), 의도적 상표권 선등록(36.4%) 등이 주된 피해 형태로 나타남

- 상표권 피침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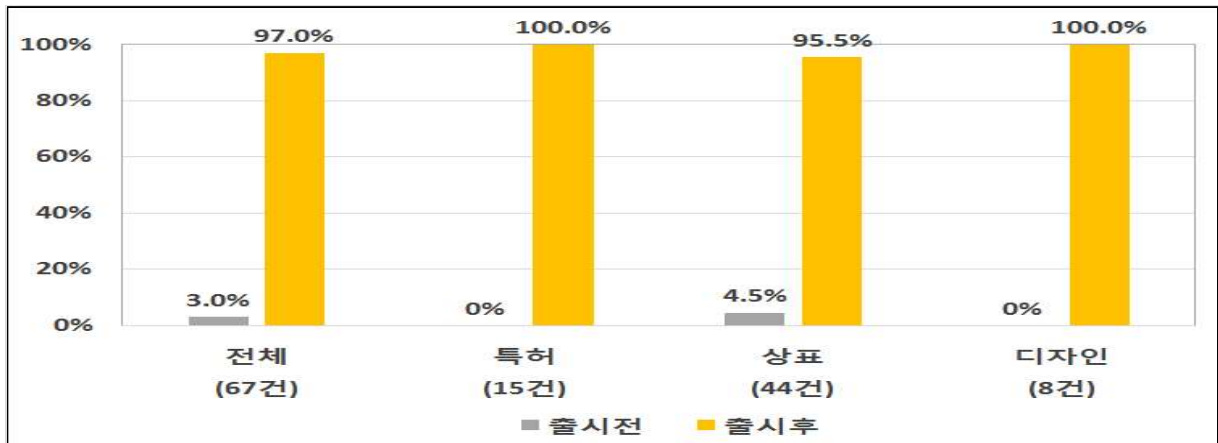


<분쟁발생 지역별 상표권 피침해 피해형태(복수응답)>

12) 각 피침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기업별로 대표사건 5건까지 구체적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67건의 피침해 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사

○ (피해 시점) 지재권 피침해 분쟁은 거의 대부분 제품 출시 후(97.0%)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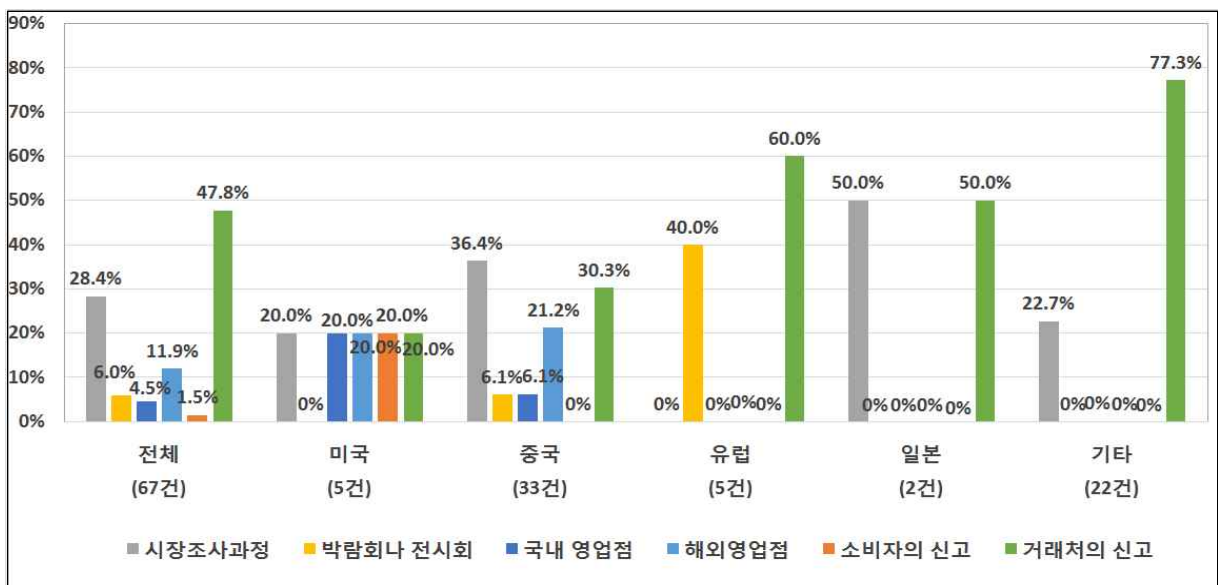
- 상표권의 경우는 제품 출시 전에 분쟁이 발생한 비율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지재권 유형별 피침해 피해시점>

○ (피해 인지 경로) 피침해 사건은 거래처의 신고(47.8%), 시장조사과정(28.4%)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유럽에서는 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 피침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40%)



<분쟁 발생 지역별 피침해 피해 인지 경로>

- (피해 규모) 피침해 사건의 평균 손실액¹³⁾은 1.9억원이며, 특허와 디자인의 평균 손실액이 각각 3.8억원, 3.7억원으로 높게 나타남

<피침해 분쟁 피해규모(자사손실액)>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0원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2~4천만원	4~6천만원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42	8	11	6	11	4	2	192.3
특허	9	0	3	1	1	2	2	397.2
실용신안	0	0	0	0	0	0	0	-
상표	30	8	8	4	10	0	0	113.3
디자인	3	0	0	1	0	2	0	366.7

- (대응 비용) 피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비용¹⁴⁾은 평균 9천만원이며, 상표권 피침해에 대한 대응 비용이 1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로는 중국에서의 피침해 대응 비용이 1.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럽에서의 대응 비용이 7천8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피침해 분쟁 대응비용(총 대응비용)>

(단위: 건수,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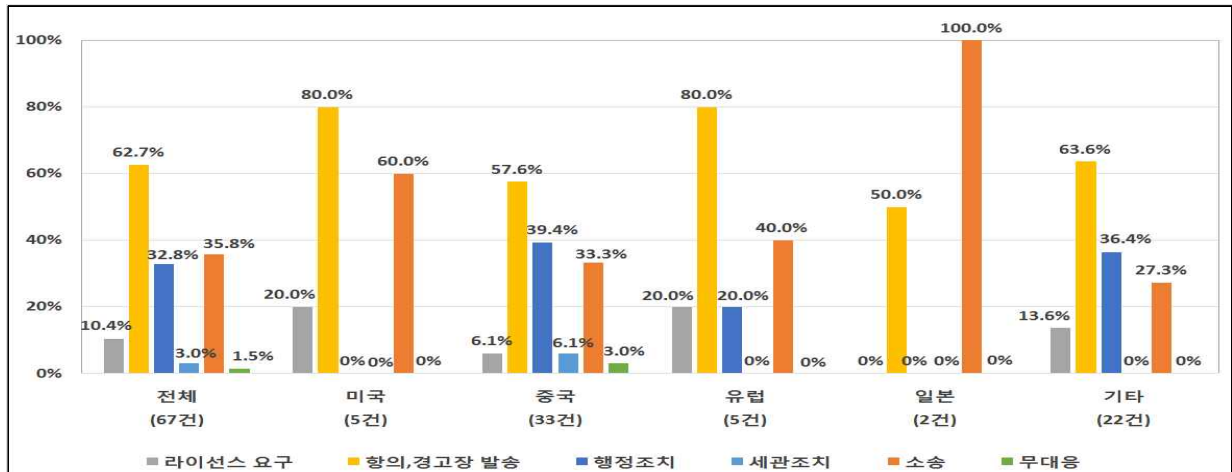
	응답 수	0원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4천만원 미만	4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61	3	18	17	13	4	6	90.8
권리 유형	특허	14	0	6	2	1	2	38.1
	실용신안	0	0	0	0	0	0	-
	상표	39	2	10	10	12	2	126.6
	디자인	8	1	2	5	0	0	9.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5	0	2	1	1	0	40.0
	중국	32	2	5	9	9	3	152.8
	유럽	5	0	3	2	0	0	7.8
	일본	2	0	0	1	0	1	35.0
	기타	17	1	8	4	3	0	20.2

13)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

14)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침해조사비용, 법률 자문비용(경고장 발송, 소송 자문 포함), 소송비용 등

○ (피침해 대응 활동) 피침해에 대한 대응은 항의·경고장 발송이 62.7%로 가장 많았고, 소송은 35.8%로 나타남

- 중국에서 발생한 피침해 사건의 경우, 행정조치를 통한 대응이 39.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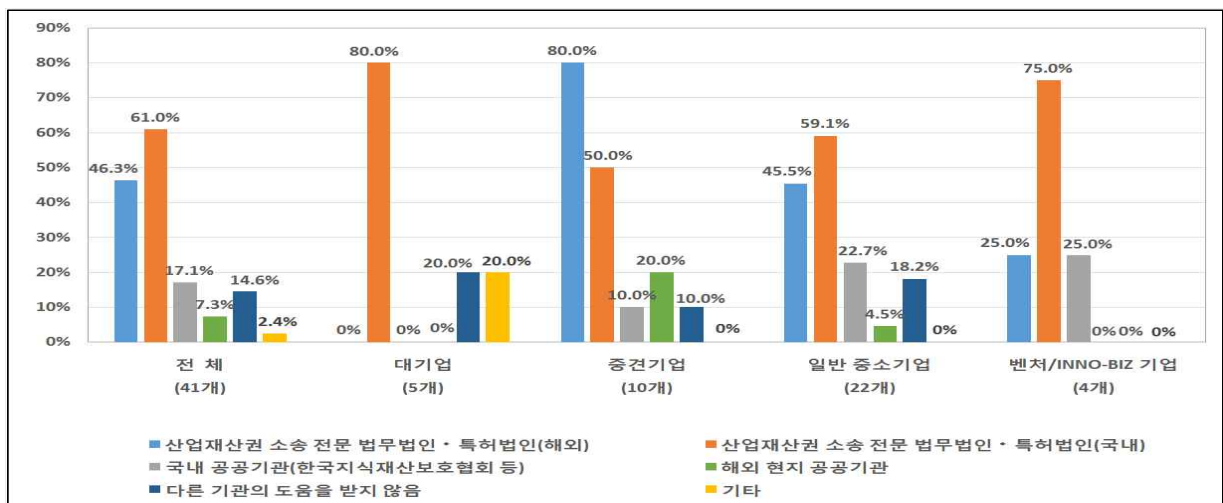


<분쟁발생 지역별 피침해 대응 활동(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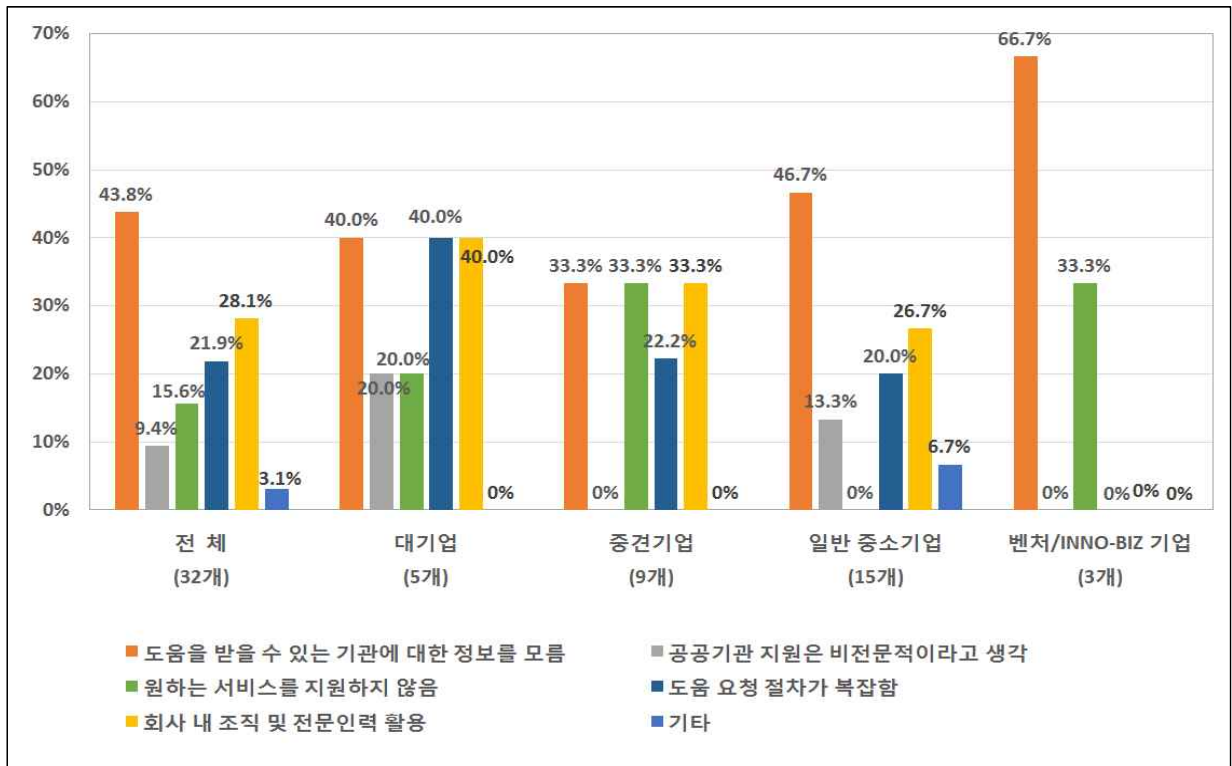
□ 피침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법 및 애로사항

○ (피침해 분쟁시 도움요청 기관) 국내외 지재권 소송 전문 법무법인(국내 61.0%, 해외 46.3%)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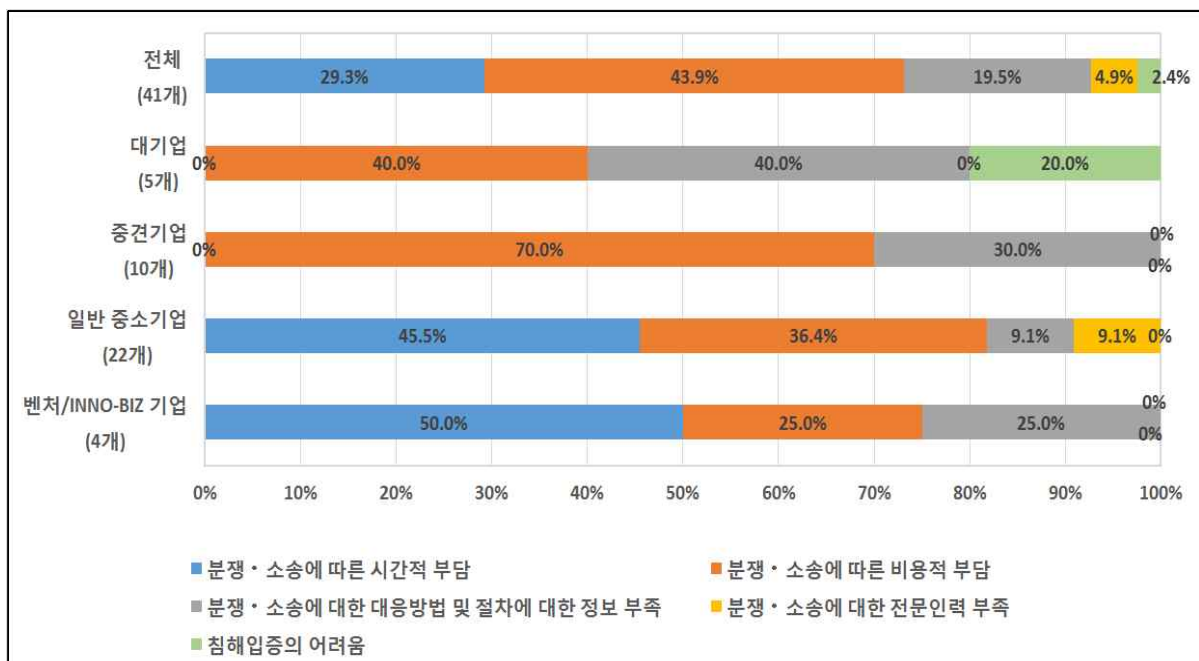
- 벤처·중소기업은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른 기업 유형에 비해 높았음(각각 25.0%와 22.7%)



- (국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이 다수(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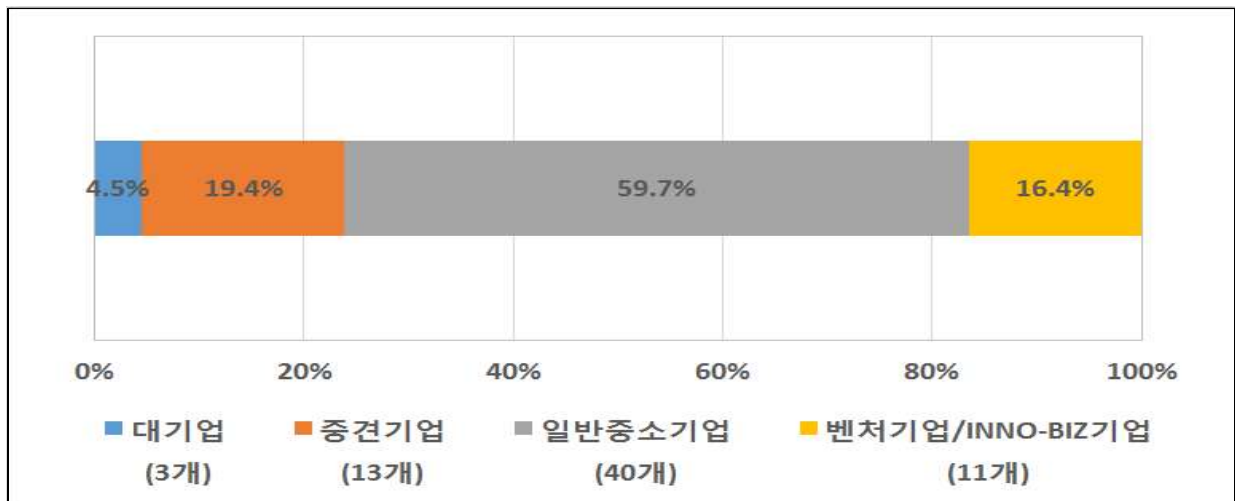
- (피침해 분쟁 대응시 애로 사항)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43.9%), 시간적 부담(29.3%)이 그 뒤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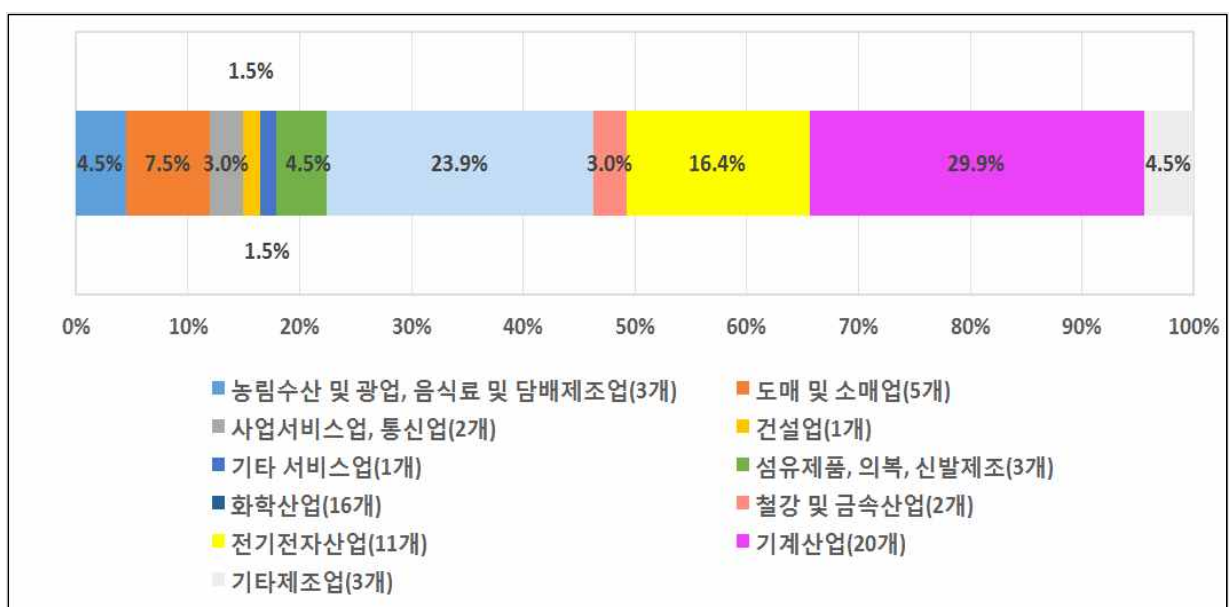
3.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기업 유형 및 유종

- 조사 대상 기업의 66.3%(101개 기업중 41개 기업)가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주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이 59.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음



- 업종별로는 기계산업(29.9%), 화학산업(23.9%), 전기전자산업(16.4%) 순으로 침해 경험이 많음



□ 분쟁 발생 지역에 따른 침해 분쟁 건수

- 침해 경험 기업은 총 104건의 분쟁을 겪었으며, 51.9%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 중소기업의 침해 분쟁 건수가 57.7%(60건)로, 이 중 절반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30건)
- (업종별) 화학산업, 전기전자, 기계산업의 침해 분쟁 건수가 많으며, 주로 미국에서의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재권 유형별) 특허권 분쟁이 68.3%(71건)로,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4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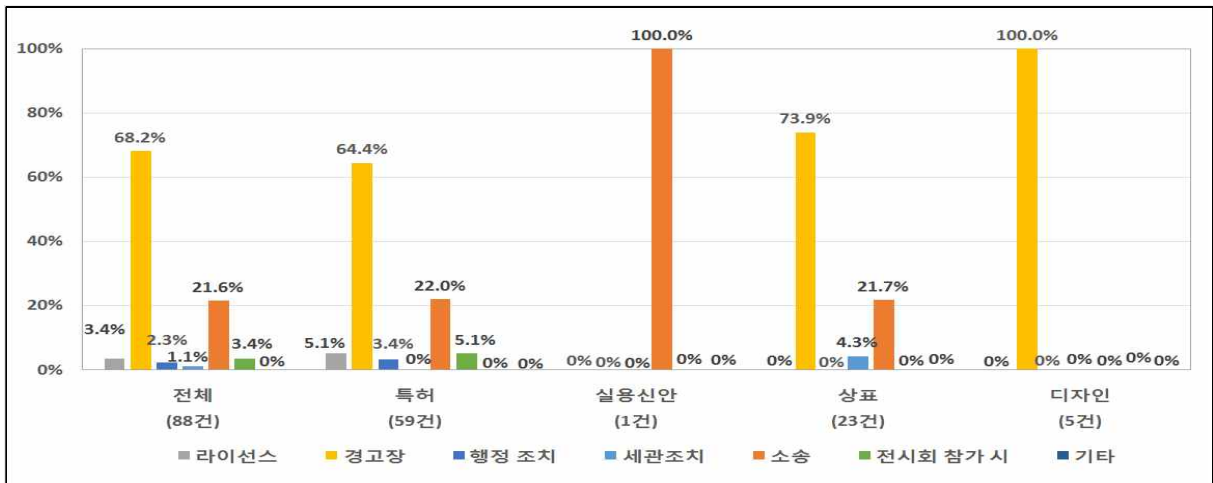
(단위: 건수(%))

		사건 수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기타
전 체		104	54	7	23	16	4
기업 유형	대기업	5(4.8)	1(1.0)	0	2(1.9)	1(1.0)	1(1.0)
	중견기업	28(26.9)	16(15.4)	0	7(6.7)	5(4.8)	0
	일반 중소기업	60(57.7)	30(28.8)	7(6.7)	14(13.5)	6(5.8)	3(2.9)
	벤처/INNO-BIZ 기업	11(10.6)	7(6.7)	0	0	4(3.8)	0
업 종	농림수산물 및 광업,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2(1.9)	0	0	0	1(1.0)	1(1.0)
	도매 및 소매업	7(6.7)	2(1.9)	0	2(1.9)	1(1.0)	2(1.9)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3(2.9)	3(2.9)	0	0	0	0
	건설업	1(1.0)	1(1.0)	0	0	0	0
	기타 서비스업	1(1.0)	0	0	1(1.0)	0	0
	섬유제품, 의복, 신발제조	3(2.9)	0	2(1.9)	1(1.0)	0	0
	화학산업	20(19.2)	8(7.7)	0	4(3.8)	8(7.7)	0
	철강 및 금속산업	2(1.9)	1(1.0)	0	0(0.0)	1(1.0)	0
	전기전자산업	35(33.7)	27(26.0)	0	7(6.7)	1(1.0)	0
	기계산업	24(23.1)	12(11.5)	2(1.9)	6(5.8)	4(3.8)	0
	기타제조업	6(5.8)	0	3(2.9)	2(1.9)	0(0.0)	1(1.0)
지재권 유형	특허	71(68.3)	45(43.3)	0	14(13.5)	12(11.5)	0
	실용신안	1(1.0)	-	1(1.0)	-	0	0
	상표	28(26.9)	8(7.7)	5(4.8)	7(6.7)	4(3.8)	4(3.8)
	디자인	4(3.8)	1(1.0)	1(1.0)	2(1.9)	0	0

□ 침해 분쟁의 세부 전개 양상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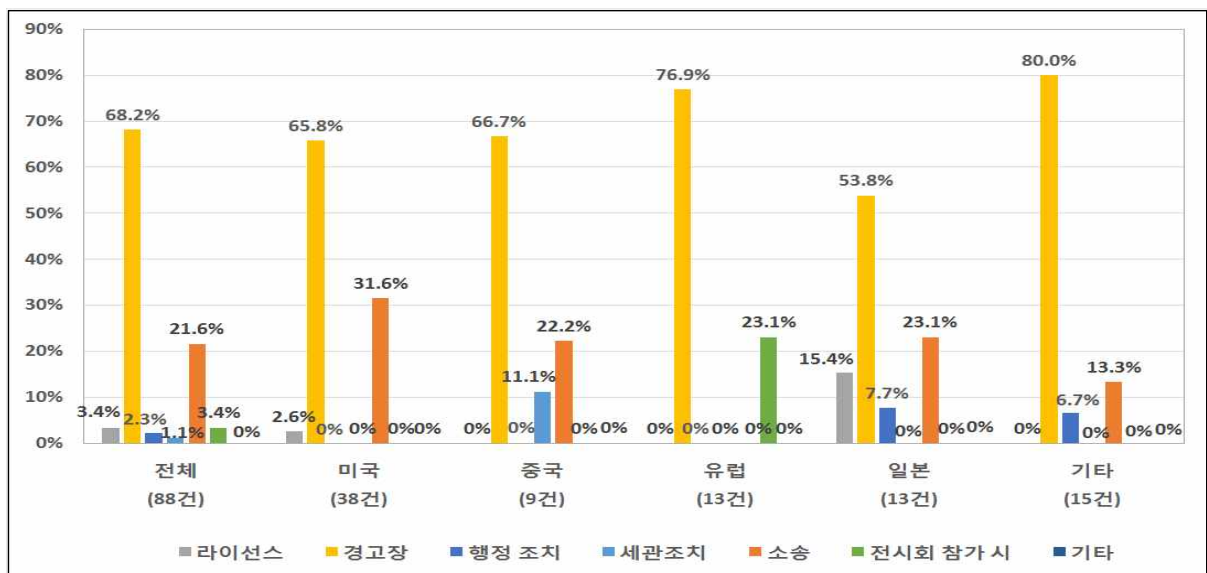
○ (분쟁 시작 형태) 침해 분쟁의 시작 형태는 경고장을 수령하면서 시작된 경우가 68.2%로 대부분을 차지

- 해외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시작한 경우도 21.6%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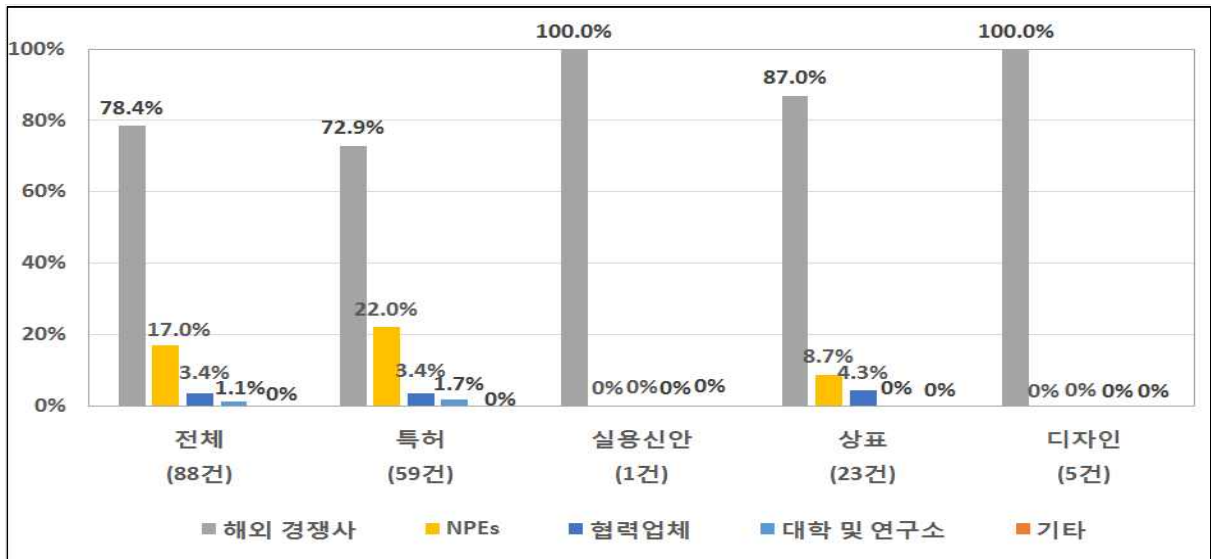
○ (분쟁 발생 지역별 분쟁 시작 형태) 지역별로도 경고장을 보거나 소송 제기를 통해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유럽은 전시회 참가로 인해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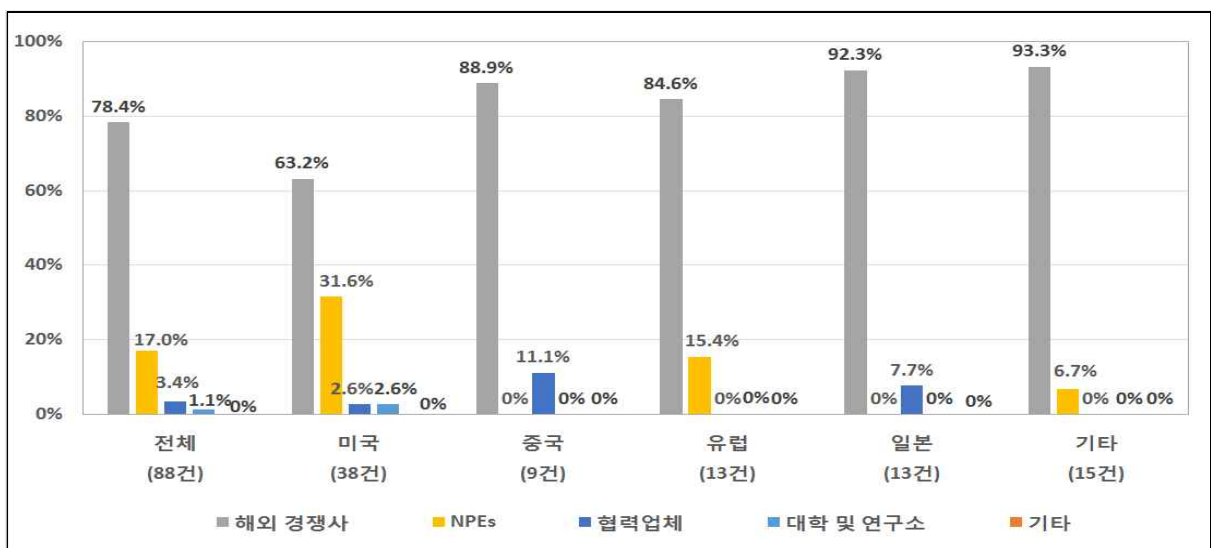


15) 각 침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기업별로 대표사건 5건까지 구체적 사항을 기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88건의 침해 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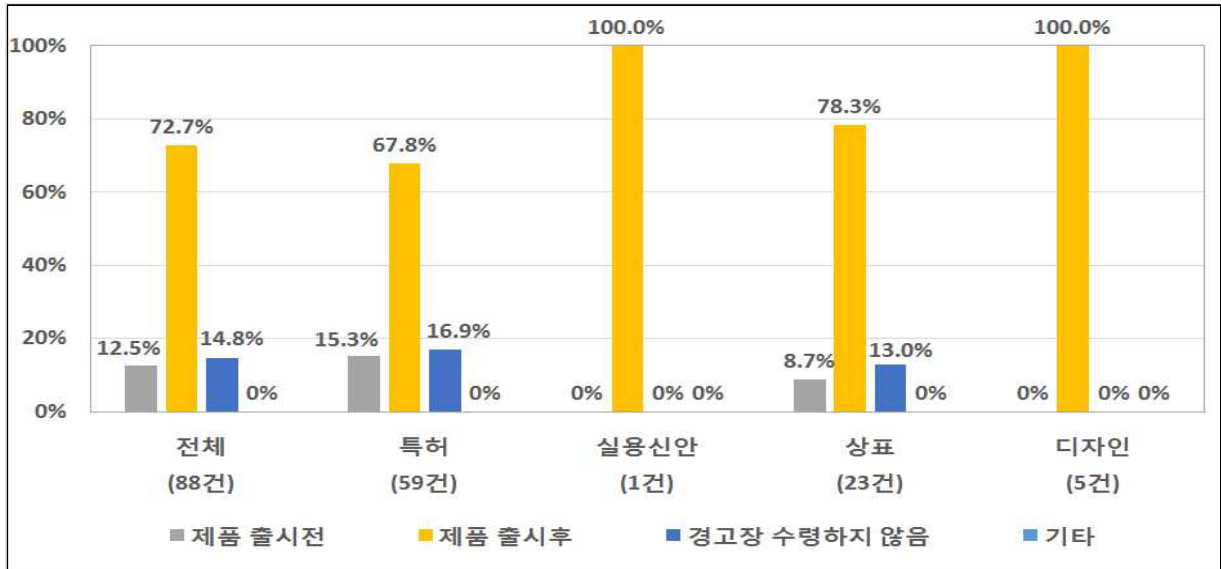
- (침해주장 기업 유형) 우리기업의 지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 기업의 유형은 해외 경쟁사인 경우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허의 경우는 NPEs(특허괴물)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22.0%로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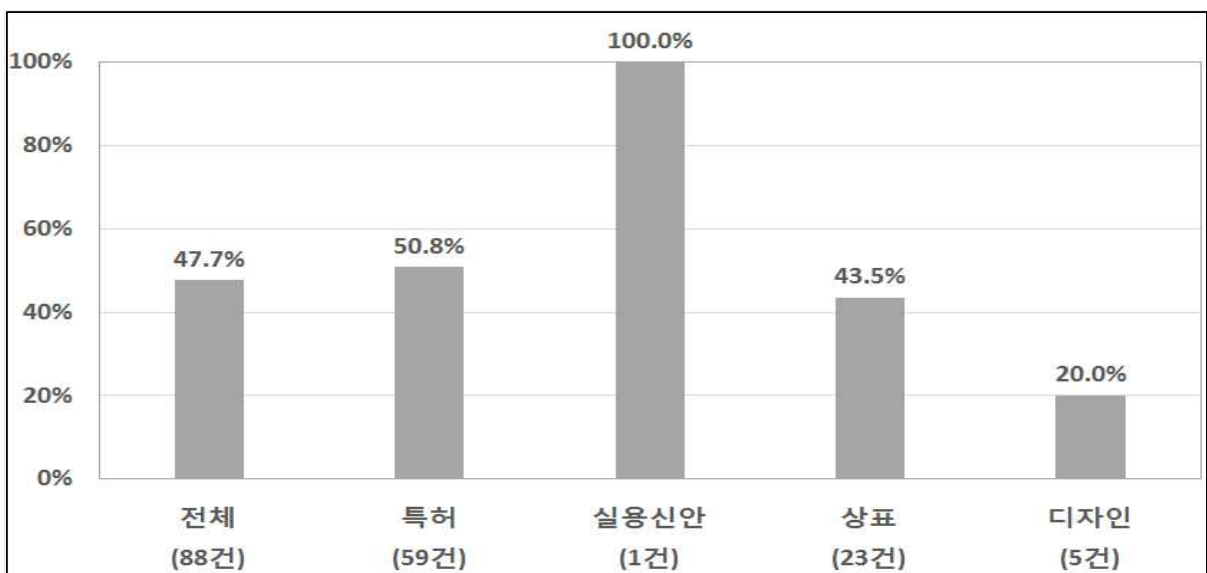
- (분쟁발생 지역별 침해주장 기업 유형) 미국, 유럽에서는 NPEs가 침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각각 31.6%, 15.4%로 높게 나타남
- 중국과 일본에서는 협력업체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11.1%, 7.7%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경고장 수령 시점) 침해분쟁에서 우리기업이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은 72.7%가 제품 출시 후에 경고장을 수령했다고 응답
- 특허권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경고장을 수령했다는 응답이 1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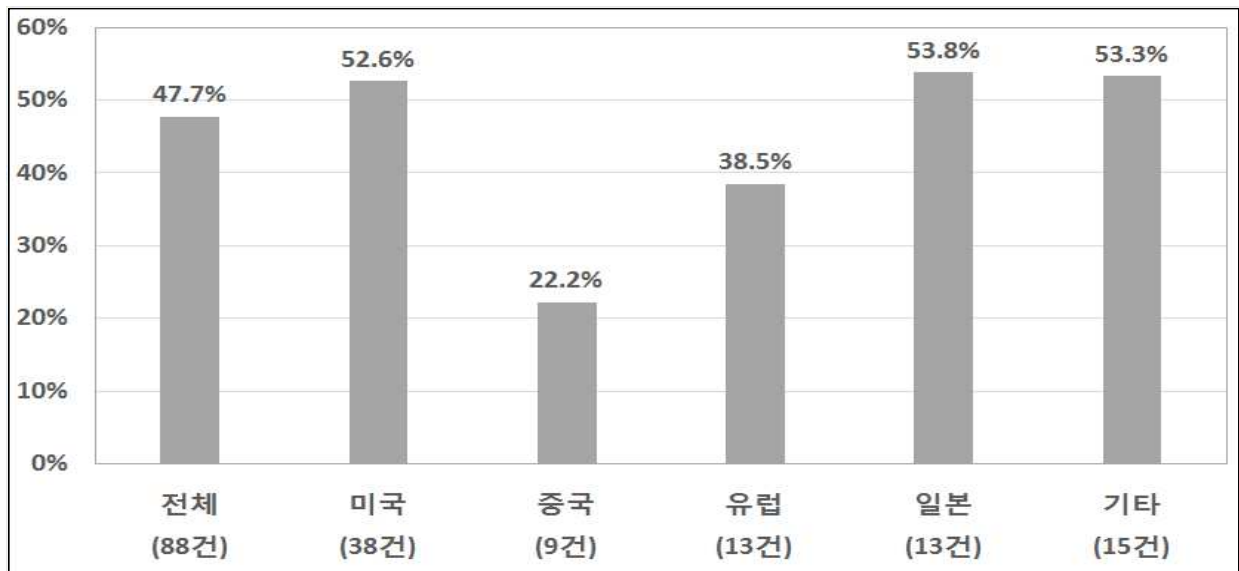


- (소송 여부) 침해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47.7%로 나타남
- 특허권의 경우, 침해 분쟁 사건 중 50.8%가 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타 권리 유형에 비해 높음¹⁶⁾



16) 실용신안 침해 건은 1건이기 때문에 제외

- (분쟁 발생 지역별 소송 여부) 일본과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53.8%와 52.6%로 높음



- (대응 비용) 침해 분쟁에 대한 평균 대응 비용은 약 8천 3백만원
 - 특히 침해 분쟁의 평균 대응 비용은 약 1억원이고, 지역별로는 미국에서 발생한 평균 비용이 약 1.1억원으로 가장 많음

(단위: 건수,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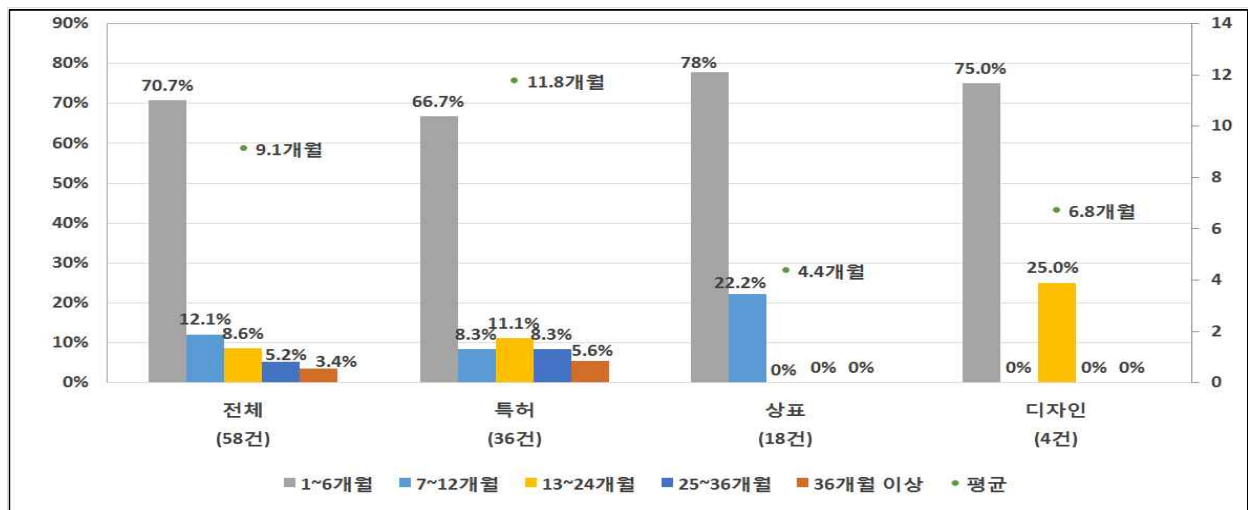
		응답 수	0원	1천만 원 미만	1~2천 만원	2~4천 만원	4~6천 만원	6천~1억원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79	18	20	11	7	3	2	18	82.5
권리 유형	특허	53	11	10	7	6	2	2	15	99.4
	실용	1	0	0	1	0	0	0	0	10.0
	상표	21	5	10	3	1	1	0	1	15.3
	디자인	4	2	0	0	0	0	0	2	300.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35	7	7	5	3	1	1	11	108.7
	중국	7	4	1	2	0	0	0	0	7.7
	유럽	13	3	4	2	1	0	0	3	69.4
	일본	11	3	2	0	3	0	0	3	79.8
	기타	13	1	6	2	0	2	1	1	52.7

- (소송 비용) 소송이 발생한 54건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7천 8백만원
 -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 침해 소송비용은 평균 9천 5백만원, 상표 침해 소송비용은 평균 1천4백만원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평균 소송비용이 116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10백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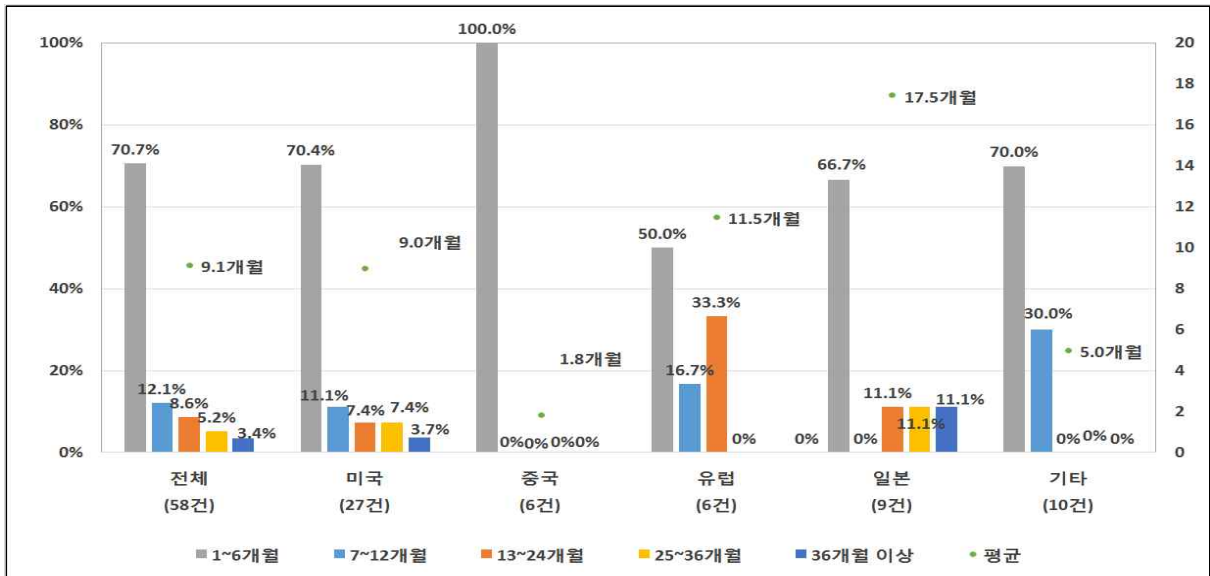
(단위: 건수, 백만원)

		응답 수	1천만 원 미만	1~2천 만원 미만	2~4천 만원 미만	4~6천 만원 미만	8~10천 만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54	16	12	6	3	1	16	78.4
권리 유형	특허	36	6	8	6	2	1	13	94.6
	실용신안	1	0	1	0	0	0	0	10.0
	상표	15	10	3	0	1	0	1	14.3
	디자인	2	0	0	0	0	0	2	300.0
분쟁 발생 지역	미국	34	7	7	3	1	0	15	115.5
	중국	4	0	5	0	0	0	0	10.0
	유럽	13	4	4	1	0	0	3	31.6
	일본	10	3	0	4	0	0	4	79.8
	기타	13	6	2	0	2	1	1	52.7

- (분쟁 기간) 종결된 침해 분쟁의 분쟁기간은 평균 9.1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침해 분쟁이 1~6개월 이내에 종결
 - 상표권 침해 분쟁이 평균 4.4개월로 가장 짧고, 특허권 침해 분쟁은 평균 11.8개월로 분쟁 기간이 길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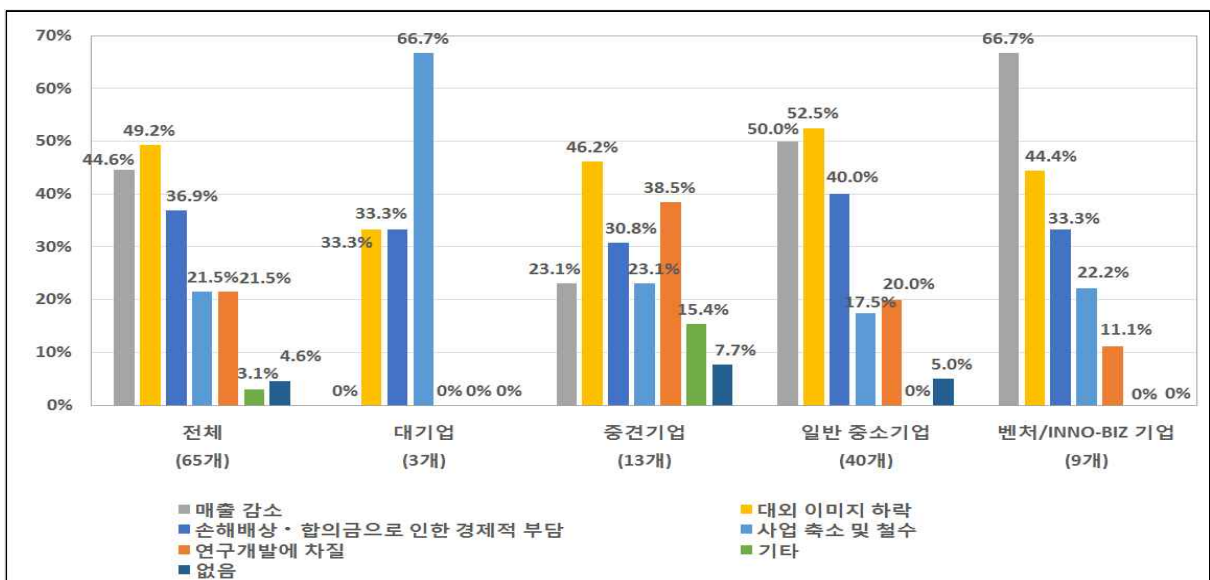


- (분쟁 발생 지역별 분쟁 기간) 일본에서의 평균 침해 분쟁 기간이 17.5개월로 가장 길었고, 중국은 1.8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남



□ 침해 분쟁 발생시의 손해(복수응답)

- 대외 이미지 하락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49.2%), 매출감소(44.6%)와 손해배상·합의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6.9%)이 그 뒤를 따름
- 대기업은 사업 축소 및 철수를 가장 큰 손해로 꼽은 데 반해, 중견·중소기업은 대외 이미지 하락을 가장 큰 손해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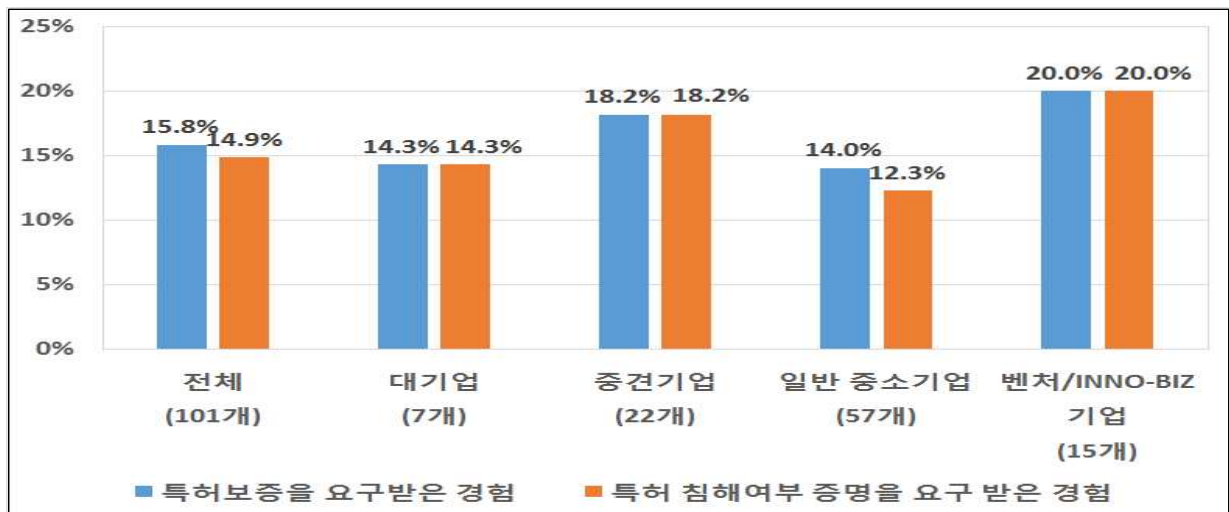


4. 특허 보증 및 전시회 분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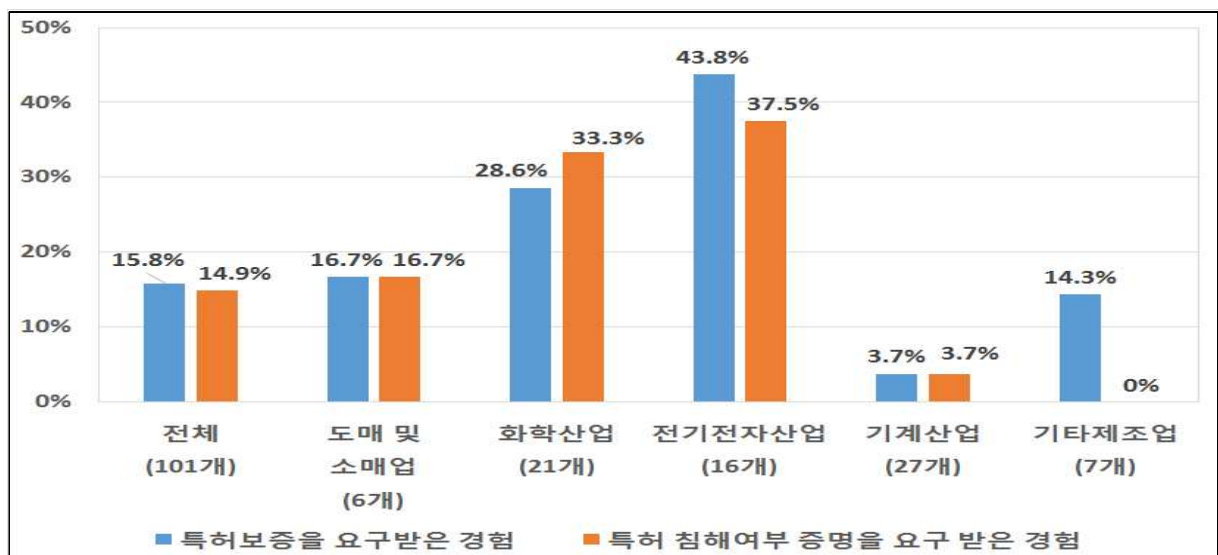
□ 특허 보증 현황

○ 조사 대상 기업중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8%,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기업은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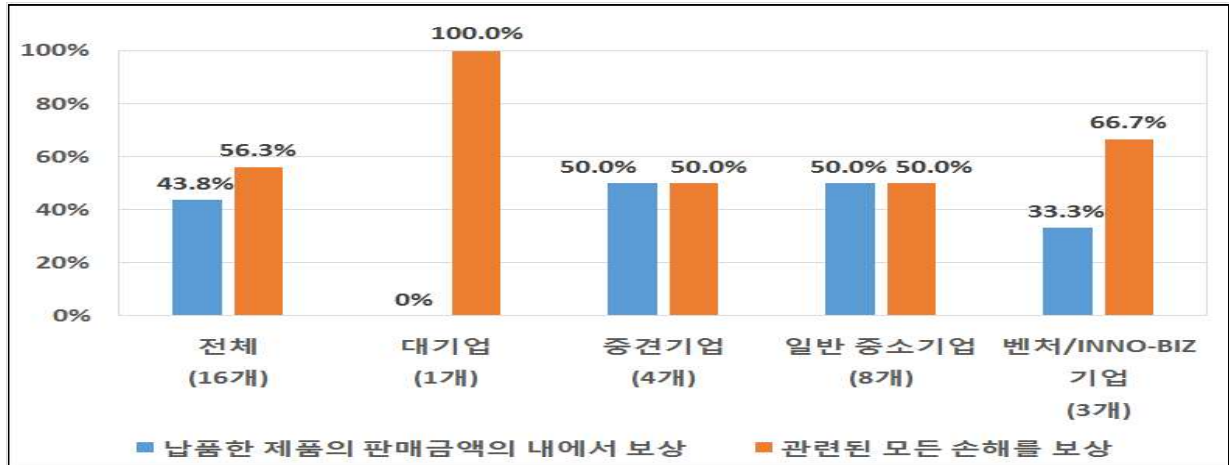
-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특허 보증 요구를 받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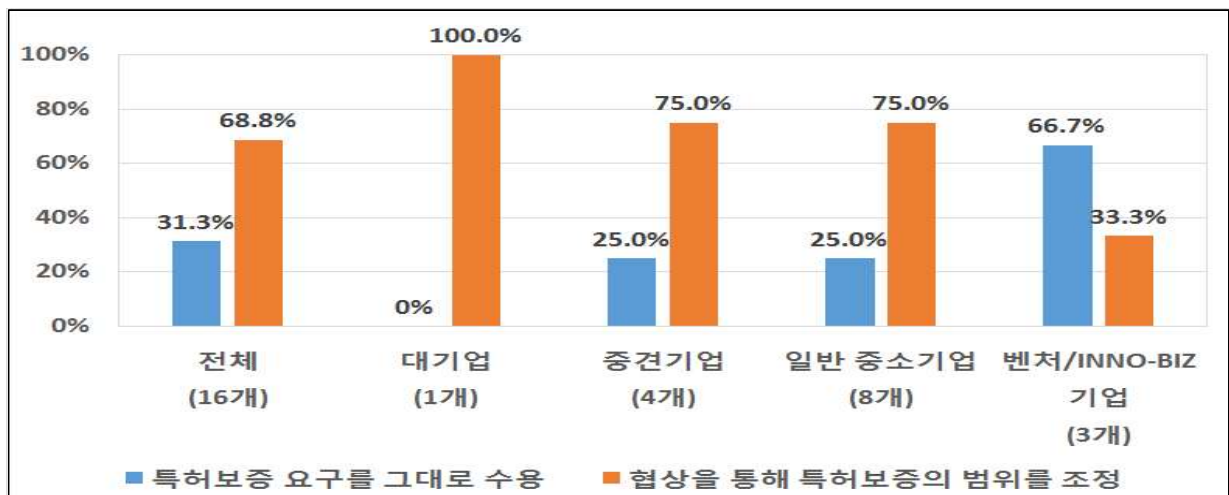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산업(43.8%), 화학산업 분야(28.6%) 순으로 특허 보증 요구를 받은 경험이 많음



- 특허보증 계약 내용을 보면, 특허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56.3%로 납품한 제품의 판매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3.8%)보다 높았음



- 특허보증 요구에 대해 협상을 통해 보증 범위를 조정했다는 비율이 68.8%로 보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기업 비율(31.3%)보다 높음
- 벤처기업은 특허보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비중(66.7%)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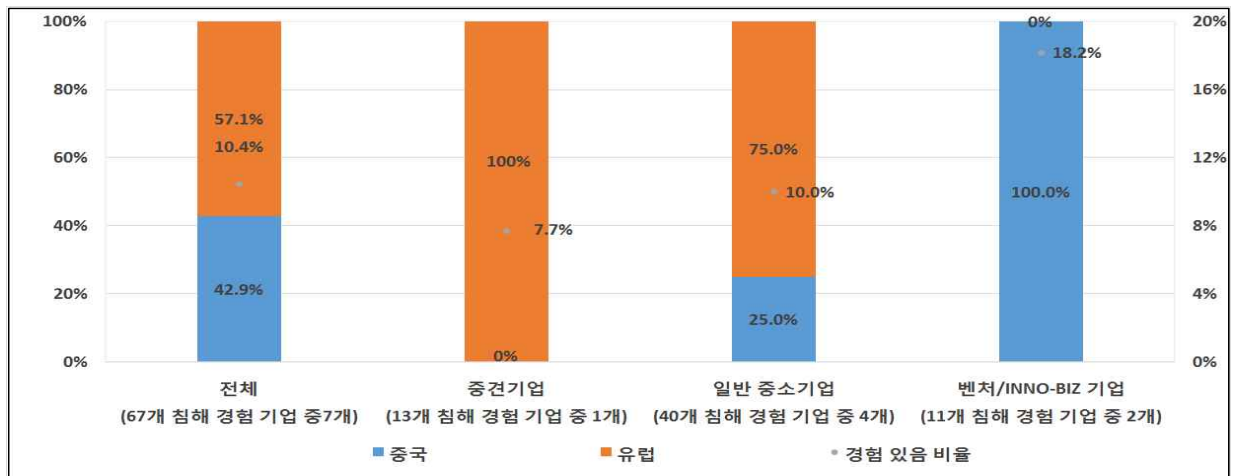
- 특허보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평균 43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

〈특허보증을 요구 받은 경우 특허보증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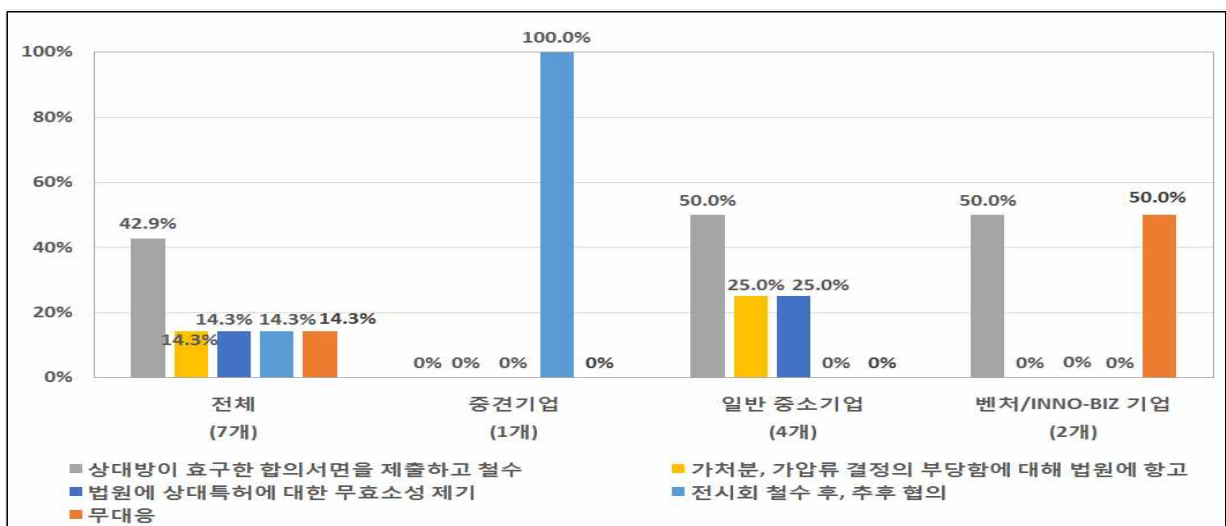
전체(16)	대기업(1)	중견기업(4)	중소기업(8)	벤처/INNO-BIZ 기업(3)
4,321,428원	무응답	8,750,000원	2,875,000원	1,250,000원

□ 전시회 분쟁 및 대응 현황

- 침해 분쟁을 경험한 기업 67개 중 10.4%(7개)의 기업이 전시회 분쟁 경험이 있으며, 경험 국가로는 유럽이 57.1%, 중국이 42.9%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전시회 분쟁 경험 비율이 18.2%로 가장 높음
 - 중견기업은 유럽에서, 벤처기업은 중국에서 분쟁을 겪었으며, 중소기업은 유럽에서의 경험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전시회 분쟁에서 우리기업이 물품을 압수당한 경우 42.9%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서면을 제출하고 전시회에서 철수했다고 응답함
 - 법원 항고, 무효소송 제기 등과 같은 적극적 대응은 많지 않았고, 벤처기업의 경우 무대응했다는 답변도 있었음



- 전시회 분쟁 대응 시의 애로사항으로 기업의 57.1%가 대응 절차를 잘 모른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중견기업은 시간의 부족함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데 반해,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대응 절차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

